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5면)

“해외 연수보다 민생... 공무국외 출장비 반납하자”



박지선 송파구의원 (장지, 위례동)

박지선 송파구의원(장지, 위례동)은 8일 송파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며, 송파구의회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는 주민이 어려울 때 의

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공통분담의 의미로, 송파구의회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2026년도 송파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예산 1억5300만원을 반납해 이 예산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저는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 가는지, 송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지 사전에 확정하고, 연수 후에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10대 송파구의회가 충분히 송파를 공부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은 뒤 정말 필요한 정책연수가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준비해서 가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